

부정어와 도치 현상에서의 제약과 구문의 상호 작용*

김 종 복

1. 들어가는 말¹

조동사와 본동사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래 예문들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부정어(Negation), 도치(Inversion), 축약(Contraction), 동사구 생략(Ellipsis) 현상에서(이를 약칭 NICE 구문이라 함) 찾을 수 있다 (Kim 2000 참조).

부정어(Negation): 영어의 문부정어 *not*은 조동사 뒤에만 올 수 있다.

- (1) a. Tom will not leave.
- b. *Tom kicked not a ball.

도치(Inversion): 본동사와 달리 조동사만이 도치될 수 있다.

- (2) a. Will Tom leave the party now?
- b. *Left Tom the party already?

축약(Contraction): 조동사만이 부정어의 축약형인 *n't*를 가질 수 있다.

- (3) a. John couldn't leave the party.
- b. *John leftn't the party early.

생략(Ellipsis): 본동사의 동사구 보어는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조동사의 동사구 보어는 생략(elide)될 수 있다.

* 본 논문의 일부분은 2000년 제6회 담화 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에 발표되었고, 이기동·신현숙(2000)에 포함되었다. 학회 참여자들의 논평과 비평에 감사드리며, 본 익명의 논평가 두 분의 건설적 비판과 제안에 감사드린다. 또한 본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평을 해준 강우순, 정 찬, 유은정, 조세연, 이성범, 박정운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지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모든 논평과 제안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본인의 책임이다. 본 연구는 1999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과제번호 KRF-99-042-A00255).

- (4) a. If anybody is spoiling the children, John is ____.
 b. *If anybody keeps spoiling the children, John keeps ____.

조동사에 민감한 이러한 현상들 중 부정어 현상은 지난 10여 년간 생성문법 연구에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Pollock 1989, Lasnik 1999, Kim 2000 참조). 특히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왜 문부정어 *not*이 한정(*finite*) 동사 앞에 올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사 *never*와 다른 분포를 보여주는 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 (5) a. *John not left.
 b. John did not leave.
 c. John made Bill not leave.
- (6) a. John never left.
 b. John made Bill never leave.

문부정어 *not*의 특이한 속성은 동사구 생략에서도 발견된다. 아래의 (7)의 예문들은 부정어의 위치가 동사구 생략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7)a에서와 같이 부정어가 한정(*finite*) 조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동사구를 생략할 수 있지만, (7)b에서와 같이 비한정(*nonfinite*) 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에는 동사구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a. Though his supporters asked him to approve the bill, the President could not ____.
 b. *Though his supporters had asked him to ratify the treaty, the President could have not ____.

만약 부정어 *not*을 *never*와 같이 동일하게 부사로 취급한다면 왜 아래 예문, 특히 (8)a가 비문인지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8) a. *Though his supporters asked him to approve the bill, the President could never ____.
 b. *Though his supporters had asked him to ratify the treaty, the President could have never ____.

조동사구문과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는 또 다른 구문은 도치 구문으로, 이 구문 역시 생성문법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왔다. 아래 (9)에서 제시한 예들은 도치 구문들의 몇몇 하위유형들이다. 문제는 이들 하위 유형들이 '도치'라는 공

통된 속성뿐만 아니라 자신 고유의 제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4.4절 참조). 문법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이들 각각 구문들이 갖는 특유의 속성을 포착하는 동시에 이들이 갖는 공통된 일반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9) a. *May they live forever!* (소망(wish) 구문)
 b. *Boy, was I stupid.* (감탄도치구문)
 c. *Don't you even touch that!* (강조부정 도치구문)
 d. *Were they here now, we wouldn't have this problem.*
 (조건절 도치 구문)

본 논문은 조동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형태와 의미가 한 짝을 이루는 구문(constructions)을 문법의 원초적 개념으로 보는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과 여러 문법적 제약(constraints)들의 상호 작용이 문법의 기본 틀을 이루는 제약기반이론(Constraint-based Grammar)을 접목시켜 이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아래 2장에서는 제약기반이론의 기본적 속성과 그 필요성을 먼저 살펴본 후, 3장에서는 구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구문들 사이의 관계가 다층상속 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본다. 4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기반인 제약기반이론 HPSG의 기본적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제약과 다층상속위계의 문법적 역할을 알아본다. 이러한 배경 위에 부정어 구문과 도치 구문에 관한 새로운 제약기반이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제약기반이론(Constraint-Based Grammar)의 정의와 필요성

2.1. 제약기반이론이란?

자연언어 기술에 있어서 설명적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을 가진 문법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적절한 제약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과 같이 언어적 제약성이 거의 없는 규칙으로는 올바른 문법기술을 할 수는 없다.

- (10) *Make the main verb agree with the preceding noun beginning with /p/ with the meaning of box or student on Mondays after 9 a.m. in a leap year.*

¹ 부정어와와 관련된 기존 이론, 특히 변형적 분석 방법에 관한 문제점은 Kim(2000) 참조. 도치 구문에 관한 변형 생성문법적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제약문법(Constraint-Based Grammar: CBG)은 문법 자체가 제약들(constraints)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제약간의 상호 작용이나 통합(unification)과 같은 메커니즘이 문장의 문법성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대표적인 제약문법으로는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LFG), 일반화 구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GPSG), 핵어중심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HPSG),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등을 들 수 있다. Pollard(1996)는 이러한 제약기반 이론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생성성(generativity): 문법이론은 유한 수의 규칙으로 무한 수의 정문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법이 만들어 내는 구조들이(예를 들어 HPSG에서의 자질구조나 GB에서의 나무구조가) 정형인지 비정형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성(expressivity): 문법 기술을 위해 사용되는 메타언어(metalanguage)가 충분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² 특정 문법이 사용하는 메타언어가 기술 대상언어가 생성하는 모든 구조를 설명, 표현할 수 없다면 이는 문법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경험적 타당성(empirical adequacy): 제약문법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경험적 자료들을 정확히 기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호하고 증명할 수 없는, 혹은 추상적이며 불확실한 원리나 공리(axiom)를 설정하는 문법이 아니라, 기술 대상 언어의 광범위한 자료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칙(explicit rules)이나 원리를 가진 문법이어야 한다.

심리적 적절성(psycholinguistic responsibility): 언어의 이해(understanding)나, 발화(speech production) 과정에서 생성된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재적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조건들도 만족시켜야 한다.

- 비파괴성(nondestructiveness): 문법이 언어 구조(linguistic structure)를 변형하거나 파괴하는 Move- α 와 같은 이동규칙을 설정하지 않는다. 문법 규칙이나 혹은 어휘정보들은 언어구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상호 작용(interactions)하는 제약들로만 존재한다.³

² 술어논리, 자질구조, 구표식(phrase marker), PROLOG, LISP 등을 메타언어라 할 수 있다.

³ 따라서 제약기반이론에서는 의문사이동(wh-movement), 접사이동(affix-hopping), 핵

- 국부성(locality): 언어구조에 관한 적형성(well-formedness) 판단이, 자신을 포함한 보다 큰 구조나 다른 구조와 비교해서 결정되거나 혹은 관련지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 내에서 관련 제약들을 모두 준수하였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⁴
- 평행성(parallelism): 비록 언어 정보가 음운, 통사, 의미, 화용 등 다양한 정보 계층(level)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통적 변형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에서 설정하는 T-모형과 같이 이들 정보 계층 사이에 위계나 순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관련 언어 정보가 동일한 위치에서 수평적, 평행적으로 존재한다.
- 비독립성(radical nonautonymy): 다양한 언어정보들이 서로 밀접한 상호 제약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 비록 언어 기술이나 이해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언어 정보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많은 언어 현상은 여러 언어 정보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⁵

2.2. 왜 제약문법인가?

이러한 제약 문법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심리적 적절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 문법 이론이 설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화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련된 기본적 속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Pollard and Sag 1994, Sag 1995).

점진적 이해(Incremental Processing): 심리학적 여러 실험결과는 우리가 언어를 점진적(incremental)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예문(11)에서처럼 화자 A는 화자 B의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충분히 B 질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어이동(head-movement)과 같이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규칙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언어이해(language processing) 모형이나 분석기(parser)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언어를 처리하거나 이해하는 과정이 점진적이며(Incrementally) 통합적(integrated)인 과정이라는 사실은 구조 변경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⁴ 이러한 기준 역시 언어처리(language processing)나 이해(understanding) 방법 때문이다.

⁵ 예를 들어 어순현상에서의 통사, 음운적 정보의 상호작용, 결속이나 영역(scope) 현상에서의 통사, 의미적 정보의 상호 작용, 초점(focus)이나 주제(topic) 현상에서 음운적 화용적 정보들이 상호 작용한다. 최근 10년간의 문법 연구는 이러한 문법 정보간의 상호 작용(interface)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1) A. Senora Maria Consueol Bustamante y Bacigalupo is coming to dinner tomorrow night.
 B. Who did you say is coming to dinner tomorrow night?

*Who did you*나 *who did you say*, 혹은 *who did you say is*와 같이 B문장의 일부뿐만으로도 B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 이해 과정이 모든 정보를 취한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며 점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합적 이해(Integrated Processing): 언어 이해 과정은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세계에 관한 지식(world knowledge), 문맥정보(contextual information), 주제(topic)와 초점(focus)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요구한다

- (12) a. The council refused the demonstrators_i a permit because they_i advocated violence.
 b. The council_i refused the demonstrators a permit because they_i feared violence.

위 예문 중 대명사 *they*의 선행사로 (12)a에서는 *demonstrators*이지만, (12)b에서는 *council*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특히 소위 말하는 Garden-path 문장인 (13)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14)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문장을 이해 할 때 특정 언어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언어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Garden-path sentences:
 a. The horse raced fast the barn fell.
 b. The woman warned the lawyer was misguided.

- (14) a. The landmine buried in the sand exploded.
 b. The woman thought the lawyer was misguided.

위 문장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구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의미적 정보, 사전적 정보, 세계적 정보 등이 필요하다.

무순서(order independence): 언어 이해 과정은 또한 특정 언어 정보가 선행한다던가 먼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 (15) a. The sheep that was sleeping in the pen stood up.
 b. The sheep in the pen had been sleeping and were about to wake up.

예문 (15)a에서는 *was*의 형태적 정보(morphological information)가 양(sheep)의 수를 알려주지만, (15)b에서는 양이 필기도구(writing instrument)가 아닌 울타리(fence)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세상 지식(world knowledge)이 형태적 정보 보다 선행되어 처리(process)된다. 언어 이해 과정은 이처럼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각각 필요한 정보의 순서는 다르다.

만약 이와 같이 언어 이해 과정이 사전적(encyclopedic) 정보나, 담화, 세상 지식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정보가 통합적(integrated)으로 요구되는 과정이고, 또한 모든 문장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순서에 따라 문장을 점진적(incremental)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면, 언어능력(competence)을 위한 가장 적절한 문법은 부분적인 언어기술(partial linguistic descriptions)도 처리할 수 있는 문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각의 다양한 언어 정보가 충분히 개별적으로, 점진적으로 처리, 이해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 정보의 무순서성(order independence)은 언어적 구조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순서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를 발화 혹은 사용하는 과정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선행되거나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Jackendoff 1997 참조).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 자체의 속성이나 언어 사용에서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문법 모형은 문장 정보 전체를 중요시하는 문법 모형이 아니라 부분적(partial) 혹은 국부적(local)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선언적 제약(declarative constraints)들로 이루어진 문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 제약들이 문법 토대를 이루는 제약기반 이론은 전통적인 변형 생성 문법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T모형을 선택하는 전통적 변형이론에서는 통사적 정보(s-structure), 음운적 정보(PF), 의미적 정보(LF) 사이에 정보 순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과 같은 규칙은 국부적 구조(local structure)가 아니라 문장 전체(total representations)에서 다른 문장으로 투영(mapping)되는 문법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 3장에 살펴볼 제약문법의 하나인 핵어중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이하 HPSG)은 국부적 구조가 관련 제약들을 모두 충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문법 구조의 적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며, 여러 언어정보 사이에 순서나 위계가 없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문법 모형을 가지고 있다 (Hukari and Levine 1996).

3. 구문(Constructions)의 정의와 상관관계

3.1. 구문의 개념과 필요성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은 언어 지식(linguistic knowledge)이 일반적인 지식(knowledge) 유형과 동일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언어는 다양한 구문(constructions)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위계(hierarchy)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구문문법에서는 영어의 문장들이 ‘구문(constructions)’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며, 이들 구문들은 특정 어휘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신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Goldberg 1995, Kay et al. 1997). 다시 말하면 특정 구문의 의미해석은 의미합성성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 등과 같은 일반적 원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는 고유의 의미적 속성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위계(multiple inheritance)와 같은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격자(lettice)로 되어있다.⁶

구문문법은 언어 본질에 관한 해답을 중요(major) 현상에 관한 문법연구(core grammar)에서 찾으려는 전통적 노력과는 달리 자신 고유의 통사적 의미적 속성을 가진 주변적 현상(peripheral phenomena)에 관한 연구와 병행했을 때 더 쉽게 찾는다고 본다. 이는 여러 주변 현상들이 ‘구문(constructions)’의 속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줄뿐만 아니라 이들 현상들이 모두 중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함축의 차이(differences in implicature): 각각의 다른 구 유형들이 특정한 의미나 함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16)a는 정원 전체가 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미적 함축을 (16)b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Goldberg 1995 참조).

- (16) a. The garden is swarming with bees.
 b.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이러한 함축의 차이는 (17)a와 (17)b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전자만이 트럭이 진초로 가득차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⁶ 보다 형식적인 구문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is a construction iff C is a form-meaning pair <F, S> such that some aspect of F or some aspect of S is not strictly predictable from C's component parts or from other previously established constructions. Kay (1997) 참조.

- (17) a. I loaded the truck with the hay.
 b. I loaded the hay onto the truck.

우리가 흔히 접하는 *be afraid to*와 *be afraid of*도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8) a. I am afraid to cross the road.
 b. I am afraid of crossing the road.

(18)a는 (18)b와 달리 *to* 부정사구(infinitival clause)를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18)a는 길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함축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래 예문들의 적절성(acceptability)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19) a. It was so windy that I was afraid to open the umbrella/*afraid
 of opening the umbrella.
 b. I am *afraid to fall down/afraid of falling down.

특정 의미: 구문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특정 구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의미 현상이다. 아래 결과 구문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 (20) a. He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b. She baked him a cake.
 c. Dan talked himself blue in the face.

예문 (20)에 있는 동사들은 모두 자동사이지만 '본 동사의 행위로 인해 X가 Y를 Z라는 결과 상태로 되게끔 초래하다(X causes Y to be in the result state Z by the main verb's actio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동사로 사용되는 이들 동사들이 결과구문에서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은 특정한 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이러한 의미를 '구문'의 고유속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⁷

이처럼 문장의 의미가 순수한 의미 합성성의 원리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어휘요소의 의미와 구문 고유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여러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⁷ 물론 이러한 결과 구문의 동사들을 순수 자동사와 동음이의어(homonymy나 polysymy)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어휘들이 순수 자동사로 사용되었을 경우와 결과구문에 사용되었을 경우와의 상관관계, 결과구문 동사들이 갖는 일반성 등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oldberg(1995) 참조.

Way 구문: 표현 *way*를 포함하고 있는 구문들은 주어 동작자(actor)의 움직임(motion)을 함의(entail)하고 있다(Goldberg 1995 참조)

- (21) a. Pat fought her way into the room.
 b. Volcanic material blasted its way to the surface.
 c. The hikers clawed their way to the top.
 d. Tom dug his way out of the prison.

이러한 *way* 구문 고유의 의미적 속성은 여타 유사 구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way* 표현을 포함하지 않은 (22)a는 움직임(moving out)의 의미가 취소될 수 있지만, *way*를 포함한 (22)b는 이러한 의미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2) a. Frank dug his escape route out of prison, but he hasn't gone yet.
 b. *Frank dug his way out of prison, but he hasn't gone yet.

WXDY 구문: *What is X doing Y* 구문 역시 구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통사적, 의미적, 형태적 제약을 명확히 보여준다.

- (23) Madam: Waiter, what's this fly doing in my soup?
 Waiter: Madam, I believe that's the backstroke.

*What is X doing Y*이 갖는 의미적 특성은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incongruity)'이다. 위 예문 (23)은 파리가 음식 속에 들어 있는 비적절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적절성은 담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4)a와 달리 (24)b는 비적절성을 적절성으로 바꾸는 문맥 수정이 불가능하다(Kay and Fillmore 1997 참조)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 (24) a. Look what your children are doing in my garden.
 How sweet of them!
 b. What are your children doing playing in my garden?
 Isn't that cute? (불가능)

그러나 WXYD 구문이 주어진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엄격한 형태, 통사론적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황에 관한 비적절성'을 함축하지 않는다.

(25) *do*가 반드시 있어야 함:

What activity was she engaged in under the bed?

(26) *do*가 반드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함:

What does this cratch do on the table?

(27) *doing*은 반드시 *be*동사의 보어이어야 함

a. What did he keep doing in the tool shed?

b. What was he still doing in the tool shed?

(28) *else*와 같이 사용할 수 없음:

a. What are you doing eating cold pizza?

b. *What else are you doing eating cold pizza?

(29) 부정 표현과 같이 사용할 수 없음:

a. *What aren't my brushes doing soaking in water?

b. *What are my brushes not doing soaking in water?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가지 구문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각각의 구문들이 자신 고유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각 언어정보의 특성들이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문 고유의 제약이나 관련 구문들이 제약들로부터 기인한다.

3.2. 구문 사이의 관계와 제약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문에 관한 제약이 통사적일 수도 형태론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약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구문 자체의 제약일 수도 있고 다른 구문으로부터 상속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Wh-cleft나, 자유 관계절 (free relative clause), 그리고 that 관계절은 자신 고유의 명시적(stipulations) 제약을 가지고 있다(Zwicky 1987, 1995 참조).

(30) Wh-cleft: wh-구는 wh-단어 하나만 사용될 수 있음.⁸

a. Where they came from was (from) Antarctica

b. *Which bird we saw was the penguin.

c. *From where they came was Antarctica.

⁸ Which bird did we see but the penguin!와 같은 Exclamatory Cleft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31) Free rel: *wh*가 인간(human)이 아니어야 함⁹

- a. *Who I saw snubbed me.
- b. What I saw bit me.

(32) *that*-주어 관계절은 반드시 무생물이어야 함:

- a. the people who admired me
- b. *the people that admire me
- c. the people that I adm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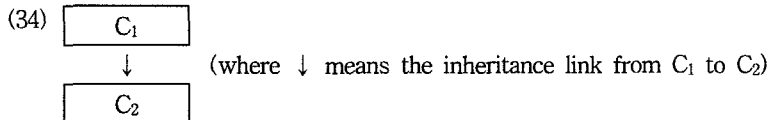
이처럼 구문에 관한 특정 제약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다른 구문의 제약으로부터 유추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else*는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관계절에는 사용될 수 없다.

(33) a. Who else did you notice?

- b. *the people who else we noticed (*else*는 비한정(indefinite) 명사와만 결합)

관계절에서 *else*가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첫째, *else*가 *someone else*, **those else*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한정(indefinite) 대명사와만 결합해야하며, 둘째 의문문의 대명사는 비한정(indefinite)인 반면 관계절의 대명사는 한정적(definite)이어야 한다는 제약들로부터 기인한다.

실제로 구문의 많은 속성들은 자신 고유의 것이 아니라 여러 관련 구문의 제약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구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아래처럼 상속선(inheritance link)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위 구문의 속성들이 하위 구문으로 상속되어진다(Goldberg 1995 참조).



이러한 상속 위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중 상속(multiple inheritance)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 구문의 속성이 여러 구문으로부터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과 동사-분사구문(verb- particle

⁹ *Whoever I saw snubbed me*에서와 같이 *Wh-ever* 관계절에는 이러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construction)의 속성이 결합된 경우를 살펴보자. 결과구문의 특징 중 하나는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목적어와 이를 서술하는 결과구(resultative phrase)의 위치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이다.

- (35) a. He talked himself horse.
b. *He talked horse him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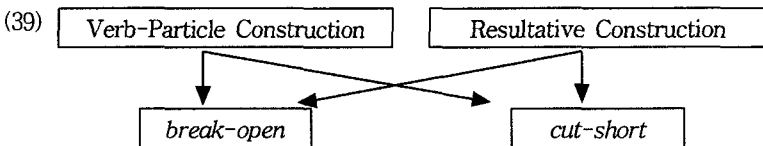
- (36) a. He hammered the metal flat.
b. *He hammered flat the metal.

그러나 특정 결과구문에서는 동사-분사구문과 유사하게 목적어와 결과구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 (37) a. He cut the speech short.
b. He cut short the speech.

- (38) a. Break the cask open.
b. Break open the cask.

위 예문들이 갖는 속성은 아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사-분사 구문과 결과구문의 속성을 복합적으로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구문적 관련성은 아래 (39)의 다층 위계 상속구조(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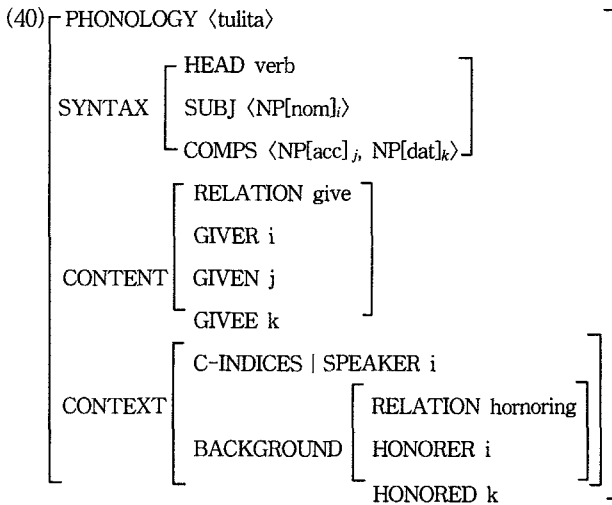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사 및 의미적으로 서로 관련 있는 구문들은 다층상속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내에서 상속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상위구문의 제약이나 속성이 하위구문으로 상속되는 상속위계구조는 구문간의 공통된 속성을 포착, 일반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문이 갖는 고유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4. 제약기반이론에서의 구문(Constructions)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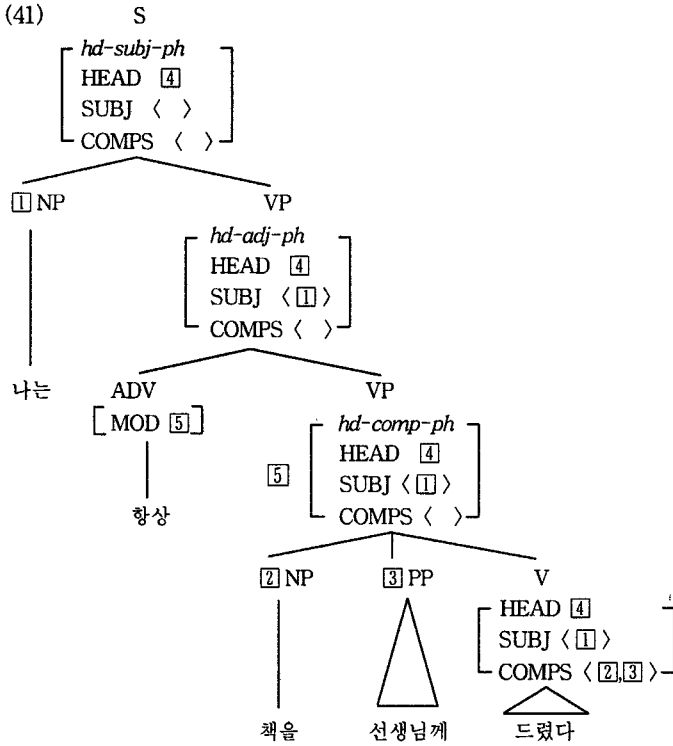
4.1. 제약기반이론에서의 이론적 도구

제약기반이론 중의 하나인 HPSG에서는 모든 언어 기술이 자질구조(feature structure)에 관한 부분적 기술(partial descriptions)로 표현된다. 자질구조의 속성은 선언적(declarative)이며, 순서독립적(order-independent)이며, 역산(reversible)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언어 발화나 이해과정에 있어서의 심리학적 적절성(psychological adequacy)을 잘 반영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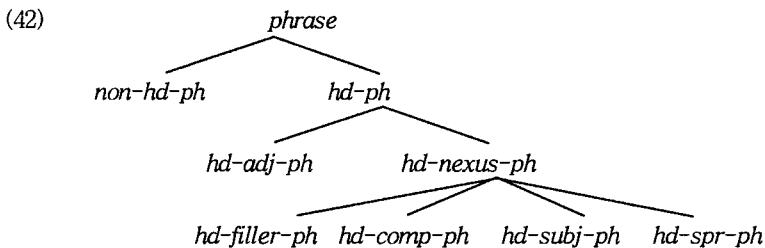
예를 들어 다음은 HPSG이론 내에서 언어 기호 ‘드리다’를 자질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동사 ‘드리다’는 음운적 정보(PHONOLOGY), 수여동사라는 하위정보화에 관한 통사적 정보(SYNTAX), 의미역에 관련된 의미에 관한 정보(CONTENT), 또한 존경의 대상이 누군가를 나타내어 주는 화용적인 정보(CONTEXT)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정보간에는 순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상호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풍부한 어휘 정보와 소수의 보편적 제약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부분적 언어정보들을 기술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 구조를 살펴보자.



위 나무구조에서의 각각의 국부구조를 살펴보면, 각각 핵어-보어구(hd-comp-ph), 핵어-부가어(hd-adjunct-ph), 핵어-주어구(hd-subj-ph)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구들은 핵어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나 항가원리(Valence principle)와 같은 보편 제약(universal principles)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하는 고유의 제약들을 준수한다. 아래 (42)의 상속위계는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해 주며 여러 종류의 구들이 상속위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Sag 1997b, Ginzberg and Sag 2000 참조).



위 위계구조에 따르면 구들은 먼저 비핵어구(non-hd-ph)와 핵어구(hd-ph)로 나누어지고, 핵어구(hd-ph)는 다시 핵어-부가어구(hd-adj-ph)와 핵어중심구(hd-nexus-ph)로, 그리고 후자는 핵어-충전소구(hd-filler-ph), 핵어-보어구(hd-comp-ph), 핵어-주어구(hd-subj-ph), 핵어-지정어구(hd-spr-ph)로 나누어진다. 이들 모든 구 유형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제약을 준수함과 동시에 자신의 상위 유형이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핵어-구(hd-ph)가 가지고 있는 핵어자질원리(Head Feature Principle)인 (43)는 자신의 하위 구 유형들도 지켜야 하는 보편적 제약이다.

(43) Head Feature Principle:

$$hd-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 \boxed{1} \\ \text{HD-DTR } \left[\text{HEAD } \boxed{1} \right] \end{array} \right]$$

위 제약이 의미하는 것은 핵어-구가 가지는 품사(parts of speech), 격(case)과 같은 핵자질(head feature)은 핵딸(head-daughter)의 핵자질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HPSG에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편 제약은 항가원리(Valence Principle) 제약이다. 이는 전통적인 ‘원리와 매개(Principles & Parameters)’ 이론에서의 X’이론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핵어-구(hd-ph)가 지켜야 하는 보편적 제약이다(/는 무명세 값(default value)을 의미한다).

(44) Valence Principle:

$$hd-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SUBJ} / \boxed{1} \\ \text{SPR} / \boxed{2} \\ \text{COMPS} / \boxed{3} \\ \text{HD-DTR } \left[\begin{array}{l} \text{SUBJ} / \boxed{1} \\ \text{SPR} / \boxed{2} \\ \text{COMPS} / \box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항가제약(Valence Principle)은 근본적으로 핵어-구의 주어(SUBJ), 지정어(SPR), 보어(COMPS)의 값은 핵딸의 주어, 지정어, 보어의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어구(hd-ph) 하위유형(subtype)이 이에 반하는 자신 고유의 제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보편 제약이 위반(override)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핵어구의 하부 유형인 핵-보어구(hd-comp-ph)는 아래 (45)과 같은 자신 고유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45) Head-Complement Sche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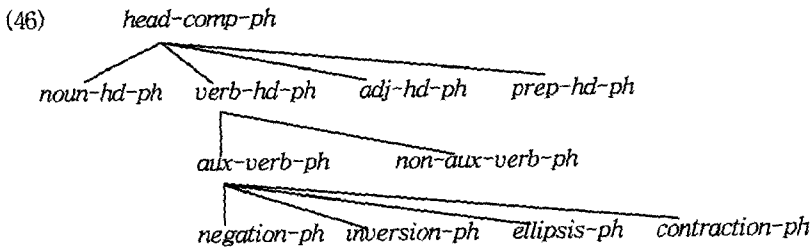
$$hd-comp-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COMPS \quad \langle \quad \rangle \\ HEAD-DTR \quad [COMPS \langle [1], \dots, [n] \rangle] \\ NON-HD-DTRS \langle [1], \dots, [n] \rangle \end{array} \right]$$

즉, 핵어구와는 달리 핵보어구는 자신의 COMPS 값이 핵말의 COMPS값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결합한 보어 값을 뺀 나머지 부분, 즉 영(null)이 된다.¹⁰ 이와 같이 하위 유형 자신 고유의 제약이 상위 유형의 제약과 상충될 때 이를 위반(override)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약기반 이론인 HPSG에서는 먼저 풍부한 어휘정보들이 구 혹은 문장으로 투영된다. 이 때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들이 여러 보편 제약 및 개별 제약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전체 문장의 문법성을 결정하게 된다. 즉 구문과 이들이 갖는 제약들, 그리고 어휘 정보의 상호 작용이 문법성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4.2. 조동사 구문(Auxiliary Constructions) 및 관련 현상의 분석

제약기반 이론인 HPSG는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여러 구들을 속성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들 하위 유형 구들 사이의 관련성을 상속 위계로 표현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이는 여러 중요 현상 및 주변 현상에 관한 기술적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영어의 조동사 관련 구문인 부정어 구문(negation construction) 및 도치 구문(inversion construction)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ICE구문은 모두 조동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동사 구문의 하부 유형이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속성들도 갖고 있다. 아래 (46)의 위계구조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 (42) 위계 구조를 세분화한 것이다.



¹⁰ 보어가 하나 이상일 경우 모든 보어들이 핵어와 결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핵어-구(hd-ph)는 COMPS 값은 영(empty)이라는 독립적인 제약이 필요하다(Sag 1997a) 참조.

위 위계구조에 따르면 핵-보어구(head-comp-ph)는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핵어구로 나누어진다. 특히 이 동사 핵어구는 조동사구(aux-verb-ph)와 비조동사구(non-aux-verb-ph)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다시 부정어구(negation-ph), 도치구(inversion), 생략구(ellipsis)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조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어구와 도치구들이 갖는 속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3. 부정어 구문(Negation Construction)

영어의 문부정어 *not*은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never*와 같은 부정 부사와 유사한 통사적 분포 성향을 나타낸다.

- (47) a. Kim regrets [never [having read the book]].
 b. We asked him[never [to try to read the book]].
 c. Duty made them [never [miss the weekly meeting]].
- (48) a. Kim regrets [not [having read the book]].
 b. We asked him[not [to try to read the book]].
 c. Duty made them [not [miss the weekly meeting]].

그러나 *not*은 시제를 가진 한정동사(finite verb) 함께 사용되었을 때의 위치는 *never*와 명백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never*와 달리 *not*은 한정동사구(finite VP)를 수식하거나 바로 앞에 위치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 (49) a. John never [read the book].
 b. *John not [read the book].

부정어 *not*의 또 다른 특징은 크게 동사구 수식(VP modification)기능과 문부정어(sentential negation)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사실은 여러 현상에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 (50)은 (51)a와 (51)b로 각각 해석되어질 수 있다(Radford 1988 참고).

- (50) The President could not approve the bill.
- (51) a.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the President to approve the bill.
 (wide scope reading of *not*)
 b.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President not to approve the bill.
 (narrow scope reading of *not*)

문장 (50)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사 *simply*가 사용된 (52)a는 (51)a 해석만 가능하고 (52)b는 (51)b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 (52) a. The President could not simply approve the bill.
 b. The President could simply not approve the bill.

또한 What-cleft 구문 (53)a는 (51)a의 해석만 (53)b는 (51)b 해석만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도 *not*의 문부정어 기능과 동사구 수식의 두 가지 기능을 찾을 수 있다.

- (53) a. What the President could not do is ratify the treaty.
 b. What the President could do is not ratify the treaty.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동사구 생략(VP Ellipsis) 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아래 예문들은 *not*이 한정 조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경우는 동사구가 생략 가능하지만 비한정 조동사 *have* 다음에 오는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54) a. Though his supporters asked him to approve the bill, the President could not ____.
 b. *Though his supporters had asked him to ratify the treaty, the President could have not ____.
- (55) a. President could not have ratified the treaty, could he? No he could not ____.
 b. President could have not ratified the treaty. Yes. *He could have not ____.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문 (5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 부사 다음의 동사구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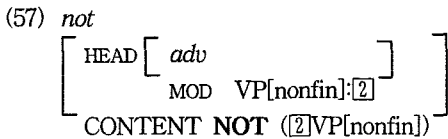
- (56) a. *Kim has never studied French, but Lee has always ____.
 b. *Though his supporters asked him to approve the bill, the President could never ____.

이는 비한정조동사 다음의 *not*은 여타 부사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한정조동사 다음의 *not*은 부사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정어 *not*의 이러한 부사적 속성과 비부사적인 속성을 동시에 포착하여 주

는 설득력 있는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구문의 개념과 제약들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면 명쾌한 분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구성소 부정(Constituent Negation): 구문의 개념을 이용한 본 제약기반이론의 출발점은 부정어 *not*은 (57)의 어휘 정보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형적으로는 비한정 동사구(nonfinite)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57)는 이를 반영한 어휘 *not*의 어휘정보이다.



(57)의 어휘 정보는 부정어 *not*이 품사적으로 부사이고, VP[nonfin] 동사구를 수식하며, 의미는 부정어가 문장 전체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식하는 동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의미영역(scope)을 가지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어휘 정보는 *not*이 동사구 수식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다양한 예문들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¹¹

(58) a. [Not [speaking English]] is a disadvantage.

b. *[Speaking not English] is a disadvantage.

c. *Lee likes not Kim.

(59) a. Lee is believed [not $v_{P[inf]}$][to like Kim]].

b. *Lee is believed to $v_{P[inf]}$ [[like not Kim]].

(60) a. *Pat [not $v_{P[fin]}$][left]].

b. *Pat certainly [not $v_{P[fin]}$][talked to me]]

c. *Pat [not $v_{P[fin]}$][always agreed with me]].

(61) a. I saw Pat acting rude and [not $v_{P[prt]}$][saying hello]].

b. I asked him to [not $v_{P[bse]}$][leave the bar]].

c. Their having [not $v_{P[psp]}$][told the truth]] was upsetting.

¹¹ *'[Speaking English]not] is a disadvantage'와 같은 비문은 *not*이 *never*, *simply* *merely*와 같이 동사구 앞에서만 수식하는 제약을 위반한다. Kim (2000) 참조.

뿐만 아니라 수식어구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recursive)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이중 부정어(double negation)가 사용되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다.

- (62) (Everyone's turning the offer down, but I'm wavering...)
 ?I can't believe you would consider [not [not [taking advantage of the offer]]].

부정어 *not*이 수식 동사구와 하나의 구성소를 이루는 이러한 분석은 (63)과 같이 동사구 전치(VP Fronting) 현상도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 (63) a. (?)They told him to not divulge the secret and[not divulge the secret] he must.
 b. (?)They suggested that she not go on the mission and[not go on the mission] she might.

이러한 분석의 또 다른 설명력은 등위 구문에서 역시 부정어가 동사구 수식기능을 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 (64) a. Dana will [[not [walk]] and [talk]].
 b. Dana will [not[[walk] and [talk]]].

위 예문들에서 부정어는 모두 원형 동사구를 수식하고 있다. 특히 부정어가 비한정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제약은 (64)a와 (64)b에서 각각 보여주는 의미적 영역(scope)에서의 차이점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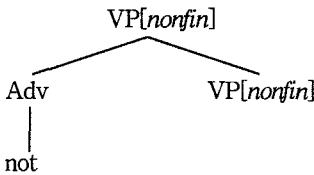
문 부정(Sentential Negation):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정 조동사 바로 다음의 *not*은 구성소 부정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이는 한정조동사 다음의 부정어가 일어나는 경우는 특정 유형의 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4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head-comp-ph*의 한 하위유형인 *negation-ph* 구가 이 경우에 해당되며 아래 (65) 제약을 가지고 있다.¹²

¹² 자질 KEY는 핵어의 의미자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치사구 *at the table*에서 *at*이 장소의 *in-relation* 의미 자질을 가졌다면 이것이 곧 KEY 자질이다. 즉 동사구에서의 KEY 자질은 동사의 의미자질과 동일하게 된다. 부정어가 수식하는 요소, 즉 동사구의 KEY 값과 부정어구 자체의 의미와 구조공유는 결국 동사가 부정어의 의미적 논항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Copestake et al.(199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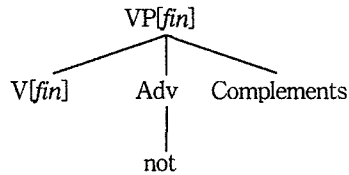
$$(65) \text{negation-ph} \rightarrow \left[\begin{array}{l} \text{HEAD} \left[\text{COMPS} \left\langle \text{ADV} \left[\begin{array}{l} \text{NEG} + \\ \text{MOD} | \text{KEY} \boxed{1} \end{array} \right], (\text{VP}[\text{bse}]) \right\rangle \right] \\ \text{CONTENT} | \text{NOT}(\boxed{1}) \end{array} \right]$$

이 제약은 근본적으로 비한정 동사구 수식 구조 (66)a와 달리 문부정은 아래 (66)b의 통사적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66) a. Modifier *not*:



b. Finite Negation:



이러한 문부정어를 다른 보어들과 동일한 통사적 위치에 둠으로써 무엇보다도 동사구 생략 현상을 깔끔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사구 생략의 기본적 제약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부사 다음의 동사구는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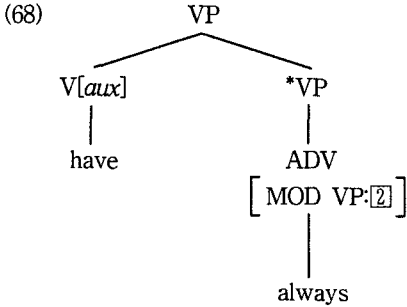
(67) a. *Kim has never studied French, but Lee has always ____.

b. *Though his supporters asked him to approve the bill, the President could never ____.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Kim(2000)에서와 같이 무흔적 이론(traceless theory, Sag and Fodor(1994))을 도입하는 것이다.¹³ 무흔적 이론에 따르면 부사다음에 동사구가 생략된 경우는 이 부사가 수식할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문이다.¹⁴

¹³ 무흔적 이론이란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 없는 추상적 요소(abstract entity)를 문법 기술에 도입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Sag and Fodor(1994)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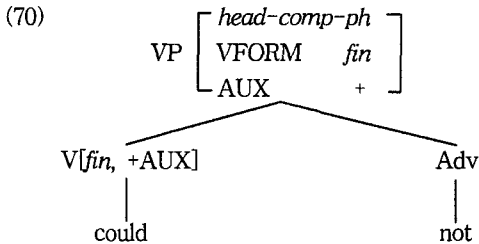
¹⁴ 다시 말하면 부사구 혼자서 정형의 구를 이룰 수 있는 구문은 없다. 자세한 논의는 Kim(2000) 참조.



이러한 분석은 *not*이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 즉 비한정 동사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인 (69)a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문부정어 기능을 하는 한정 조동사 다음에 *not*이 일어나는 (69)b와 같은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경우는 동사구가 생략될 수 있다.

- (69) a. *Kim said we should have heard the news, but Lee said that we should have not ____.
- b. Kim said we should have heard the news, but Lee said that we should not.

문부정어를 단순히 부사로 취급한다면 이러한 동사구 생략의 가능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정어구(negation-ph)의 제약처럼 조동사 다음의 부정어는 이 조동사의 보어(complement)로 다른 보어(complements)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분석에 따르면 (69)b와 같은 문장은 아래 (70)의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된다.



위의 동사구는 핵보어-구(head-comp-ph)이며 핵어인 *could*는 보어로 부사 *not*을 취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문적 제약과 어휘적 속성의 상호 작용은 (71)과 같은 문장도 정문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 (71) a. Lee may have been studying too much recently, but I'm sure that Kim may [not [have ____]].
 b. Lee may have been studying too much recently, but I'm sure that Kim may have [not [been ____]].

위 경우 부정어 *not*이 좁은 의미영역(narrow scope)를 가지는 부사로 해석되더라도 수식할 동사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4. 주어-조동사 도치 구문(Subject-Aux Inversion Construction)

전통적으로 주어-조동사 도치(Subject-Aux Inversion: 이하 SAI) 구문은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동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포착할 수 없는 SAI구문 특유의 속성을 나타내는 여러 경우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72)a는 미래(futurity)의 의미가 있지만 (72)b는 의무(deontic)감을 나타내는 의미만 갖고 있다.

- (72) a. I shall go downtown.
 b. Shall I go downtown?

이들 두 문장이 이동 규칙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동이 의미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ren't*와 *better*가 사용되는 환경들을 살펴보다도 SAI 구문이 이동 규칙에 의해서 도출된다기보다는 고유의 구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3)의 예문은 *aren't*는 주어가 일인칭인 SAI 구문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며, (74)의 예문은 *better*는 SAI에서 구문에서 일어나지 않는 조동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73) a. *I aren't going.
 b. Aren't I going?

- (74) a. I better get out of here.
 b. *Better I get out here?

위와 같은 순수한 형태적 제약을 가진 도치 구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치구문들이 존재한다. Fillmore(1999)가 지적한 것처럼 도치구문의 여러 가지 하위 유형들이 존재한다.

(75) 소망(wish) 구문:

- a. May they live forever!
- b. May I live long enough to see the end of this job!
- c. May your teeth fall out on your wedding night!

(76) 감탄도치구문:

- a. Boy, *was I stupid!*
- b. Wow, *can she 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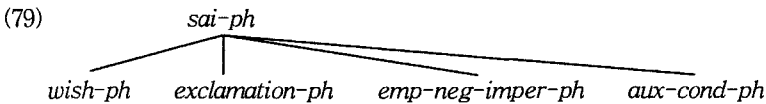
(77) 강조부정 도치구문:

- a. Don't you even touch that!
- b. Don't even touch that!

(78) 조건절도치 구문:

- a. *Were they here now*, we wouldn't have this problem.
- b. *Should there be a need*, we can always call for help.

소망(wish-ph)을 나타내는 (75)은 조동사가 항상 *may*라는 제약이 있으며, 감탄도치(exclamation-ph)인 (76)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억양(Falling Intonation)을 가진다는 음운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조 부정명령어(emphatic-negative-imperative-ph)인 (77)의 경우는 조동사가 축약된 *don't*이며 주어가 실현되는 경우 이는 *you*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조건절 도치(aux-condition-ph)인 경우는 모든 조동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were, had, should*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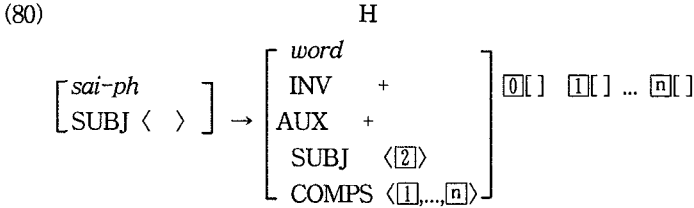


SAI 하위 유형들은 위의 위계구조가 말해 주듯이 공통점은 도치 구문이라는 사실이며 상위유형 *sai-ph*의 제약 (80)을 모두 상속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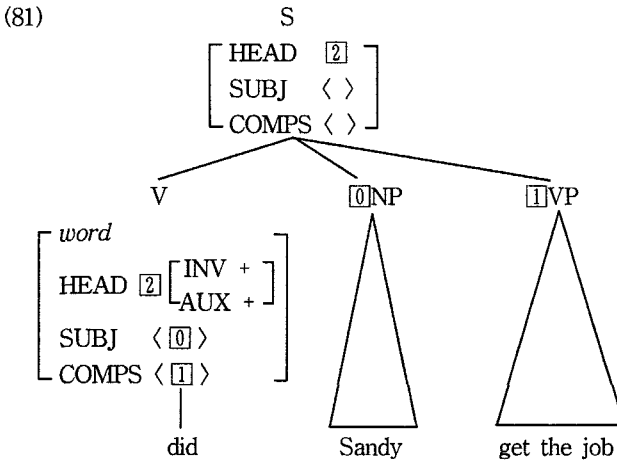
¹⁵ 이들 구문 이외에도 부정어표현 충전소(filler)를 가진 도치구문도 존재한다.

(i) Not in a million years will he finish the project.

이러한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79)의 위계구조를 수정해야 한다.



아래 (81)은 이러한 제약을 준수하는 문장 구조이다.



여기서 자질 INV 기능은 *better*나 *aren't*와 같은 어휘적 특이성을 가진 경우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전자는 [-INV]라는 어휘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INV]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better*는 도치구문에서 발생할 수 없지만 *aren't*는 도치구문에서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5. Conclusion

구문 이론의 특징은 개개 구문들이 자신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러 기타 구문들과 공유하는 속성들은 상속위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개개 유형들이 갖는 특유의 속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유형들이 갖는 일반성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편적 제약 (universal constraints)과 개별적(individual) 제약의 상호 작용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보다 기술적 설명력을 가지는 문법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이러한 제약(constraints)과 구문(constructions)의 결합은 우리가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흔적(trace)과 같은 추상적 존재의 도입을 불필요하게 한다. 이는 곧 통사 구조를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면 구조로만 언어기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휘부, 통사부, 의미부, 형태부 정보가 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는 문법 구축을 가능케 하며, 어휘부의 역할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구문과 제약이론의 결합(특히 자질구조와 다층상속위계 개념의 이용)은 개별 언어(particular grammar)에 있어서 중요 현상뿐만 아니라 주변 현상(peripheral phenomena)까지의 폭넓은 경험적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다 기술적 적절성(descriptive adequacy)을 가진 문법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기동 편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Copetake, Ann, Dan Flickinger, and Ivan A. Sag (1999) *Minimal recursion semantics, An introduction*, Ms, Stanford University.
- Fillmore, Charles J. (1999) 'Inversion and Constructional Inheritance.' in Webelhuth et al., eds,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123-128, Stanford, CSLI Publications.
- _____, Paul Kay, and Catherine O'Conner (1988) 'Regularity and Idiomaticity i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 Case of 'Let Alone,' *Language* 64, 501-538.
- Ginzburg, Jonathan and Ivan Sag (2000) *English Interrogative Construc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Goldberg, Adel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kari, Thomas E. and Robert D. Levine (1996)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Linguistics*, 32, 465-496.
- Jackendoff, Ray (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Cambridge, MA, MIT Press.
- Kay, Paul (1997) 'Construction Grammar.' in *Words and the Grammar of Context*, 123-131,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_____ and Charles Fillmore (1997)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Linguistic Generalizations: the What's X doing Y? Construction*, Ms. UC Berkeley.

- Kim, Jong-Bok (2000) *The Grammar of Nega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Lasnik, Howard (1999) *Minimalist Analysis*,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Inc.
- Malouf, Robert (1998) 'Categories, Prototypes, and Default Inheritance,' Talk given at FHCG '98.
- _____ (1997) *Mixed Categories in the Hierarchical Lexicon*,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
- Pollock, Jean-Yves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Pollard, Carl (1996) 'The nature of constraint-based grammar,' Talk given at the Pacific 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 Pollard, Carl and Ivan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adford, Andrew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g, Ivan (1995) Taking Performance Seriously, Ms. Stanford University.
- _____ (1997a) English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Journal of Linguistics*, 33, 431-484.
- _____ (1997b) Deconstructing Phrasal Constructions, Ms. Stanford University.
- _____ and Janet D. Fodor (1994) 'Extraction without traces.' in *WCCFL* 13, Stanford, CSLI Publications.
- Warner, Anthony (2000) 'English Auxiliaries without lexical rules.' in R. Borsley, ed., *Syntax and Semantics*, Vol. 32: *The nature and Function of Syntactic Categories*, 167-220, San Diego and London, Academic Press.
- Zwicky, Arnold (1987) 'Constructions in Monostratal Syntax,' *CLS* 23: 389-401.
- _____ (1995) 'Dealing out Meaning: Fundamentals of Syntactic Constructions.' *BLS* 20: 611-625.

ABSTRACT

Interactions between Constraints and Constructions in Negation and Inversion Phenomena

Jong-Bok Kim

Observations of real language use and language processing tell us that we parse our language in an integrated, order independent, and incremental manner. The grammar that reflects these robust properties would be one whose theoretical constructs are declarative constraints (cf. Pollard and Sag 1994). In addition, the fact that a given word or phrase must be used in special grammatical constructions with specific meanings (e.g., resultatives, *way* constructions, WXDY constructions and the like) provides enough reason for the supposition of constructions as primitives in the grammar (Goldberg 1995, Kay 1997)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dopt the notion of constructions within a constraint-based grammar framework, HPSG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Within the mechanism of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in HPSG, each construction has its own properties but is linked to other constructions. This system enables us to minimize the specifications on the properties of each construction and capture the generalizations across constructions. In particular, tight interactions between constraints and constructions make it unnecessary to introduce abstract, invisible traces. The paper shows that when applying this system to the analysis of auxiliary sensitive constructions such as negation and inversion, we can provide a cleaner grammar with simpler syntactic structures without resorting to unmotivated, additional mechanisms.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영어학부

전자우편: jongbok@khu.ac.kr